

군산 문화재야행 여름밤 수놓다

‘여름밤, 근대문화유산 빛의 거리를 걷다’ 주제로 다양한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 진행

야간형 문화 향유프로그램 군산문화재야행(夜行)이 지난 15일 ‘여름밤, 근대문화유산 빛의 거리를 걷다’라는 주제로 군산의 밤을 수놓으며 3일간의 행사를 마쳤다.

이번 군산 야행은 근대문화유산 거점지역인 군산 내항과 원도심 일원에서 문화재와 문화시설을 활용한 8가지 야간형 테마로 진행되었으며 40여개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했다.

행사기간 2km에 달하는 야행거리에는 아름다운 경관조명과 청사초롱이 눈을 즐겁게 했으며 곳곳에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과 포토존은 방문객의 관심을 끌었다.

최근 계속된 장마와 코로나19로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작지만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의 대표 문화행사로서 다시 한번 진면모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행사장 내 자동검역부스 운영 ▲어린이 육성을 활용한 거리두기 장내 방송 ▲모바일 앱 문화재 답사 ▲온라인 문화재 해설 ▲현장 진행요원의 거리두기 순회 홍보 등 철저한 코로나 방역시스템과 거리두기,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행사진행에 적극 대응하며 타 지자체 관계자의 벤치마킹



야간형 문화 향유프로그램 군산문화재야행(夜行)이 지난 15일 ‘여름밤, 근대문화유산 빛의 거리를 걷다’라는 주제로 군산의 밤을 수놓으며 3일간의 행사를 마쳤다.

방문과 방송사 촬영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행사의 한 기준으로 주목을 받았다.

군산시 두양수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군산 야행은 본질에 충실하면서 안전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하며 “안전한 행사진행을 위해 노력하신 자원봉사자와 거리두

기를 통한 성숙한 관람의식을 보여주신 방문객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올해 행사를 성공리에 마친 군산시는 곧바로 2021년 군산 야행을 위한 문화재정 야 행사업 공모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발대식

청소년 관련 문제 해결방안 모색·정책제안 등 당부

남원시는 지난 15일 남원시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제12기 남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교육지원청·학교, 청소년단체 및 각 시설의 추천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공개 모집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22명이 참석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참여예산제는 문재인 정부의 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청소년의 사회성과 리더십 등 다양한 민주 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청소년들이 국가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과정에 참여토록 해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남원시 여성가족과 김순복 과장은 선발된 청소년 2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앞으로 지역 내 청소년 관련 문제와 다양한 안건 논의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청소년관련 정책제안 등 청소년 권익증진에 앞장 서 달라”며 격려했다.

또한 이환주 남원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확대 제도화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우리시는 지난 7월 남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제정 공포했다”라며 “앞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청소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음악아카데미, ‘여름학기 음악캠프’ 개최

국내 최정상급 음악가들 참여해 마스터클래스·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전북음악아카데미(센터장 백희영)는 최근 전북대 예술대학에서 여름학기 음악캠프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르면 음악적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조기 발굴해 잠재력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올 3월 설립됐다. 현재 50명의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캠프에서는 국내 최정상급 음악가들이 참여해 마스터클래스를 비롯해 신체활동 수업, 합창, 합주,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됐다.

교육생들은 피아니스트 김대진(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바이올린 이성주(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함께하는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

또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우광혁 교수와 함께하는 ‘악기로 떠나는 세계여행’은 학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으로 세계 여러 나라 대표 악기들의 소리를 직접 보고 들으며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함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이윤석의 ‘하모니카 연주 및 음악에 관하여’라는 특강을 통해 작지만 풍부한 음색을 가진 하모니카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또한 합창과 합주 프로그램은 음악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 ‘함께 완성하는 음악’의 즐거움과 협동심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백희영 센터장은 “이번 음악캠프에서의 소중한 경험들을 통해 음악적 재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향후 훌륭한 음악 인재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 with 변진섭 열린음악회

31일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서 열려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오는 31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 with 변진섭 열린음악회를 유료 공연으로 개최한다.

2020년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 선정단체인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4번째 공연인 이번 공연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활력을 불어 넣는 행복을 나누는 공연이다.

평소 마음에 여유가 없고 기회가 적어 문화공연을 누리지 못했던 지역주민들에게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가수와 오케스트라의 만남이 클래식을 어렵게만 느껴왔던 지역민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것이다.

공연은 클나무오케스트라의 웅장한 하모니와 대중에게 호소력 짙은 가수 변진섭씨, 이상한 계절에서 활동 중인 싱어송라이터 김은총씨, 성악가 이승희씨, MC 임호영씨 등 풍성한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클나무오케스트라의 우수작품 레퍼토리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공연이다.

티켓예매는 오는 19일부터 부안예술회관 다목적강당에서 1매당 1만원, 1인 최대 2매까지



구입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안군민만 입장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입장시 발열체크, 자가 문진표작성, 좌석 띄어앉기를 실시하고 있으니 자가 문진표 작성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공연시간보다 여유롭게 도착해야 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